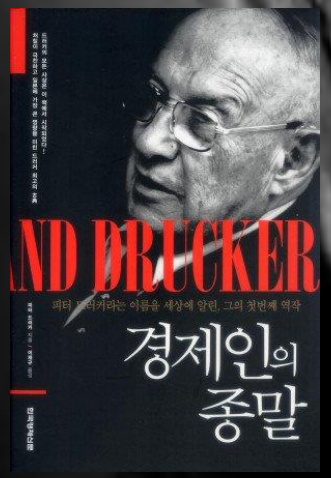
#5

피터드러커의

THE END OF ECONOMIC MAN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경제인의 종말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전체주의의 기적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민성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 이탈리아와 독일의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요인은?



i)전쟁

- 더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ii)그들의 국민성

- 국민성은 너무 복잡하고, 표면상으로 모순되며 무형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통해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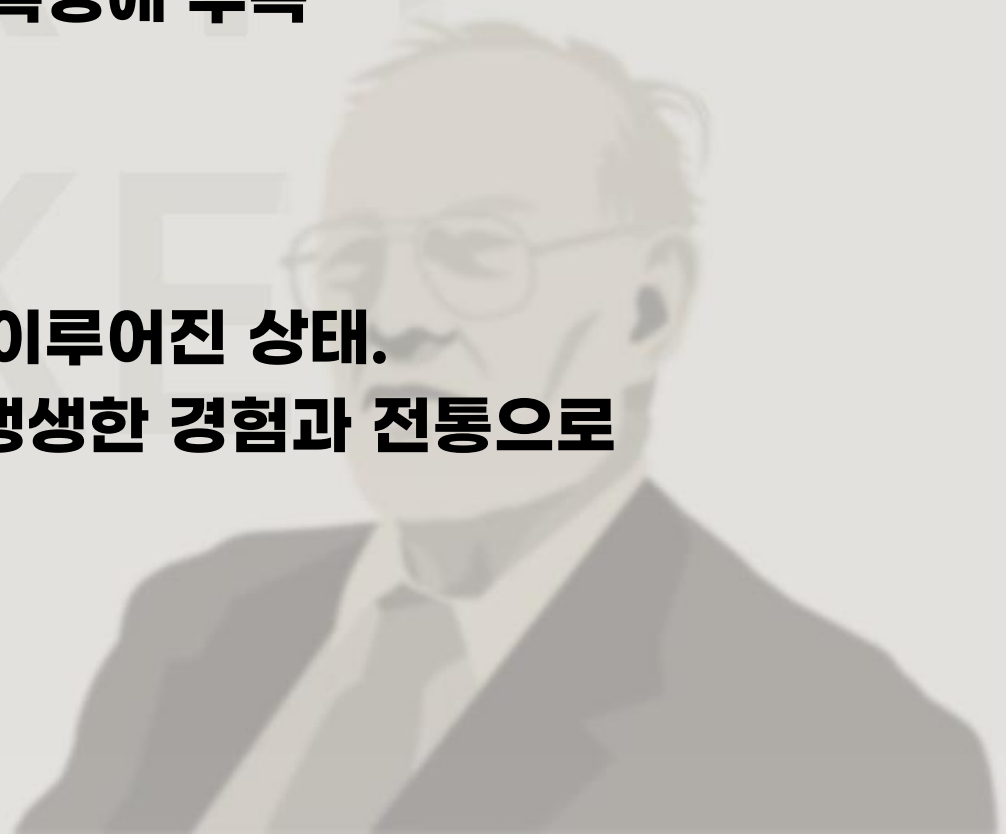
강요된 민주주의와 획득한 민주주의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 국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 외부 요소

- 이탈리아와 독일만의 공통적인 사회, 정치적 특성에 주목
  - 국가 통일의 가치 > 민주주의의 가치
  - 일차적 목적 : 국가 ↔ 부수적 목적 : 민주주의

- 다른 유럽 국가들은 국가 통일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상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한 경험과 전통으로 살아 있었다.



강요된 민주주의와 획득한 민주주의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카보우르 (1810~1861)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X
민주주의는 수단
국민국가의 설립이 목적

- ’가리발디’를 제치고 ‘카보우르’가 권력을 잡았다. (통일 왕국의 초대 총리)

- 이를 토대로 이탈리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감상적, 정서적 가치를 갖기 힘들었다.

- 즉, 민주주의 강령이 대중에게 정서적 애착심을 안겨주지 못하여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가리발디 (1807~1882)



민주주의,자유주의 강조

무솔리니와 히틀러



▼ 무솔리니 (왼쪽)　　▼ 히틀러 (오른쪽)

둘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뿐

→권력을 차지하여 기존 사회의 사회질서와 제도가

개인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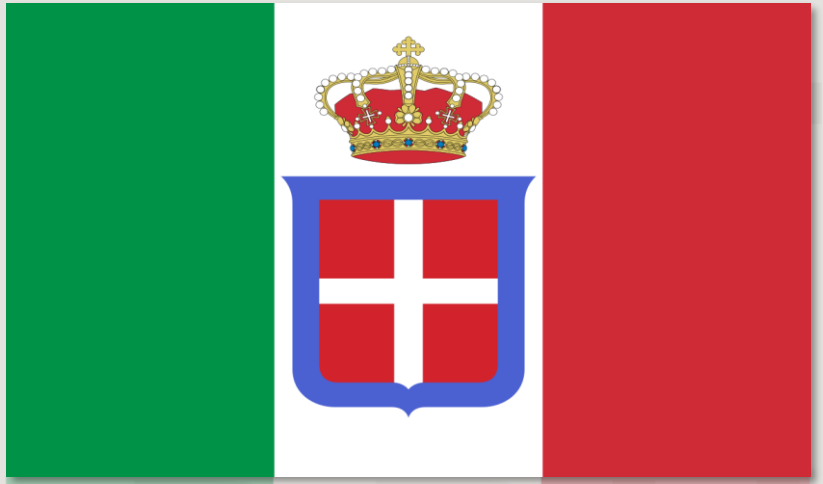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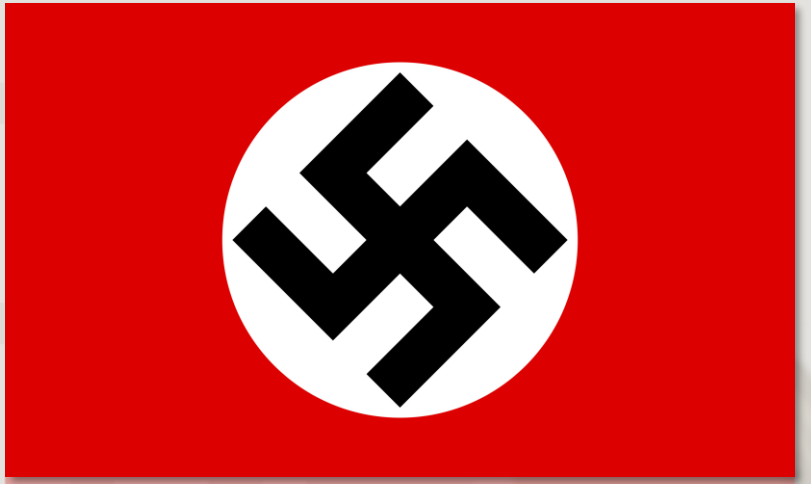
새로운 사회구조를 발명하여 운용하도록

사회가 촉구, 압박한 것

파시즘과 나치즘의 차이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독일은 이탈리아와 달리 현대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i 무솔리니는 파시즘은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나치즘은 혁명운동 그 자체로 시작되었다.
ii 무솔리니는 단계적으로 활동한 반면, 나치즘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모방이라면, 독일의 나치즘은 진정한 전체주의 혁명이다.
즉, 나치즘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가 파시즘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